

# 삶의 질을 위한 경관 독해

- 문화지리학 연구주제로서 유교의 '자연합일' 전통 -

김 덕 현\*

## Reading Landscape for Quality of Life

- 'Sense of Union with the Living Earth' of Neo-Confucian Tradition as Themes of Cultural Geography -

Kim, Duk-Hyun\*

**요약 :** 지난 몇 십 년간 한국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시-공간 압축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정체성 혼란을 심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정체성 혼돈과 여가의 증대 경향이 대중들로 하여금 '삶의 질' 요구를 제기하게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 자연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화적 감수성이란 자연과 장소에 대한 심미를 의미한다. 16세기의 위대한 유학자 퇴계 이황의 경관독해처럼, 유교적 자연미는 송고미가 아니라 자연합일 감성이다. 유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에 자신을 합일(정체화)하는 감성을 가지는 것을 최선의 일상적 실천으로 삼았다. 生生不息하는 자연의 모습을 '천지의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체득하는 것에 자기수양의 궁극적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퇴계는 자연합일을 위하여 계류 가에 집을 만들고 흐르는 물을 보며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 퇴계의 장소감은 장소의 외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주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자연 간의 감성적 연계에 관한 것이었다. '삶의 질' 추구는 인간과 자연생태계 간의 심각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참된 거주경험에 대한 욕구이다. 우리는 유학자의 '자연합일' 감성으로부터 진정한 거주경험을 배울 수 있다.

**주요어 :** 삶의 질, 정체성, 문화감수성, 자연미, 자연합일, 장소감

**Abstract :** In the last decade or so, rapid urbanization and time-space compression are occurring in the Korean society. It is anticipated that on the one hand, there will be growing chaos of identity.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enlargement of leisure time. These tendencies will raise quest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people. In this essay, it is argued that the quality of life can be achieved through recovering of cultural sensitivity towards nature and place. The cultural sensitivity means aesthetics of nature and sense of place. As reading landscape of Toe-gye(Yi Hwang, 1501-70) a great master of Neo-Confucianism of 16th, Confucian aesthetics of nature is not sublimity but 'sense of union with the living earth(自然合一)'. They thought, there could hardly be better practice than feeling identical with the living earth. They defined ceaseless process of endlessly producing life as 'the mind of Heaven and Earth', that is their eventual aim of nurturing oneself. So Toe-gye located his dwelling near stream for better reflective meditation. His senses of place were not of physical appearances, but dwelling process and sen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The quest for quality of life is the search for authentic experience to restore a serious disconnectedness in the ecology of person-environmental relationships. We can learn authentic dwelling experience from confucian 'sense of union with the living earth'.

**Key words :** Quality of Life, identity, cultural sensitivity, sense of union with the living earth(自然合一), sense of place

### 1. '삶의 질' 과 문화지리학

한국에서 20세기 후반의 생활조건의 변화는 참

으로 역동적이었다.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이 전면화되고 상품관계에 의존하는 생활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글은 최근 상품적 소비사회의 문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전공 교수(Professor of Geography, Faculty of Social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제점 극복 방향으로 나타난 '삶의 질' 요구에 주목한다. 21세기 현대인의 '삶의 질' 요구는 상품 구매를 통한 양적 욕구 충족의 한계를 직시하고, 질적·문화적 만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문화적·질적 욕구에 대한 지리적 대응으로 필자는 자연미와 장소성에 대한 문화감수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와 전제조건으로 현대의 상황을 정체성의 위기와 여가를 통한 문화적 성찰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대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대에 '삶의 질' 추구를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적 성찰의 결과로 보고, 첫째 현대의 정체성 위기를 자연과 거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회복을 통하여 극복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자연과 거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의 지리적 범주를 '자연미'와 '장소성'으로 파악한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으로서 퇴계 이황의 유교적 자연미와 장소성에 대한 약간의 경관독해를 시도한다. 넷째, 이 고찰의 함축으로 유교의 '자연합일' 전통을 현대인의 문화 감수성 회복의 방향으로 제기한다.

## 2. 성찰과 문화 감수성

### 1) 생활조건의 변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인간다운 생활' 혹은 '삶의 질'이란 문제를 제기한다. '삶의 질'이란 문제의 식은 '시-공간 압축'이라는 생활 세계의 객관적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주체적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

먼저 오늘날 세계에서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범지구적 차원의 시장통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공간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급격히 단축시키는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 전개되고 있다. '시-공간 압축' 현상은 우리의 시-공간 경험 세계를 정체성 혼란과 장소 파괴의 방향으로 교란시키고 있다. TV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와 영상은 이를 받아들이는 주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준다. 먼 세계로부터 전달된 영상과 당면의 현실이 뒤섞여 동시에 나타나는 '내파(implosion)' 현상에 대응하여 우리는 중추신경을 전세계로 확대해야 하는 고통과 직면하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해진다."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복제품의 범람과 각종 매체 영상물을 통한 가상 경험의 확대는 정체성 자체를 이미지에 의존하게 하는 정체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한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것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하고, 마침내 장소의 성격까지도 범지구적 맥락에 의해서 좌우되는 외부 지배가 심화된다. 정치권력의 공간 지배, 자본주의의 공간 상품화, 그리고 권력과 자본주의가 복합적으로 추동해 내는 문화접촉의 가속화로 나타나는 외부 지배는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구체 공간'으로서 장소를 '추상 공간'으로 '생산'한다." '공간의 생산'은 장소 정체성의 대상이 되는 개성적인 '장소'를 파괴하고, 교환가치가 중심이 되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공간을 확대한다." 이 '시-공간 압축'이 물고 온 정체성 혼란과 장소 파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장소 귀속적 정체성(place-bound identity)' 내지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에 대한 강한 추구로 나타난다. 또 진정한 장소경험 욕구에 부응하여 개별 장소를 질적으로 특별하게 구성하여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도 일반화되고 있다.

동시에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든 미래는 '여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기술적 발전에 의하여 필요 노동 시간이 축소되고, 진정한 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여가'라고 부르는 처분 가능한 자유로운 시간의 증대가 가능해지고 중시된다. 여가의 증대는 또한 노령화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에서도 도출될 것이다." 산업화에 의한 절대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은 일차적으로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소비수준의 향상 욕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기본 수요가 충족된다면, 소득의 증대에 비해 개인의 행복감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또 생존과 안전과 같은 물질적 필요(needs)와 정체성·참여·보살핌 등 비물질적 필요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는 인식도 진전되고 있다. '여가의 시대'에 대한 성찰의 성과로 새롭게 인식된 것은 '필요'와 '만족'이 구분되고, 여가는 필요보다 만족에 대한 추구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필요가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라면, 만족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이며 시너지 효과가 크다.<sup>7)</sup> 특히 여가 시간의 증대가 대중으로 하여금 소비 확대 뿐 아니라, 과거 특권층에게만 국한되었던 성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라든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처럼 정체성의 위기와 여가의 가능성이 공존할 21세기는 삶에 대한 성찰이 심화된다. 따라서 성찰은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허용한다. 결핍충족과 자기성장은 선후가 있는 단계적 요구가 아니라 동시에 병행하는 인간본성의 이중적 욕구임을 깨닫는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존재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은 문화적 행위이다. 문화적 행위란 인간적 활동이며, 활동의 질에 대한 평가이고, 물질적·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다. 포괄적으로 문화는 이데올로기 즉 신념체계로서 한 시대의 세계관의 표현이다.<sup>8)</sup> 따라서 성찰은 인간본성, 질적 평가,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적 행위로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는 정신적 현상이다.

## 2) 거주와 경험의 진정성에 대한 성찰

'삶의 질'에 대한 성찰은 상품으로 구입될 수 없는 비상품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공동체적 관계와 같은 비상품적 가치·비물질적 만족에 관한 욕구가 각성된다. 자연의 생명력과 거룩함을 느끼는 자연감수성, 그리고 뿌리박은 장소적 삶이 주는 '보살핌과 친밀성'의 공동체감성이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 인식된다.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시적 생활환경에서 자연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은 대자연의 생명력·생태계의 조화로운 관련성, 그리고 초월적 존

재 등에 대한 직관적 감수성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회적 관계의 전면적 상품화는 거주를 비롯한 생활세계에도 깊이 침투하여 인간관계의 성격을 바꾸며, 가족이나 이웃관계에서도 공동체적 친밀성과 보살핌의 윤리를 허물어 삶을 공동체에서부터 뿌리 뽑아 정신적인 무주택자를 만들어 간다.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공동체는 가정과 이웃이다. 가정과 이웃이 진정한 공동체로 생각되는 까닭은 '대면접촉'에 의한 직접적 의사소통이라는 소규모 사회의 특성이지만, 가정과 이웃이 가장 확실한 공동체라는 이유는 소규모라는 점만은 아니다. 가정과 이웃이라는 사회는 주거와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거주(dwelling)'하는 장소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공간 압축이 가져온 물리적 근접성이 반드시 사물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음미할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거주는 인간이 존재의 핵심 요소인 몸과 손(촉감)을 통하여 존재의 원천인 자연, 대지에 뿌리박음으로써 사물들과 영적 통합을 이루고 다시 자신을 보살피는 힘을 얻는 진정한 장소 경험이다. 거주의 과정은 인간이 뿌리박은 장소에서 거둬지는 대면(對面) 관계를 통하여 장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동체 뿌리인 장소를 상실한다는 것은 보살핌 받으며 쉴 곳을 잃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력은 재충전되지 못하고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장소에 뿌리박은 거주 능력의 상실은 우리가 뿌리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양육의 원천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가능할 수 없는 존재의 빈곤화를 의미한다.<sup>9)</sup>

현대인의 감수성 상실과 정신적 빈곤화는 일상 생활에서 점점 더 인간적이거나 자연적인 생생한 직접 체험을 줄이고, 전자 영상매체 등 기계 '매체'를 통한 매개 경험을 증가시키는데도 원인이 있다. 경험의 원천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매개체에 의존한 결과는 감각능력이 퇴화되면서 감수성을 둔하게 하여 심미적 체험과 시적 상상력은 빈곤해진다. 매개된 영상과 가상 경험의 범람은 경험의 '진정성'을 혼미하게 만들어 정체성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마침내 욕구는 물질적 수요에 함몰되거나 '진정한 만족'과 '유사 만족'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매개된 경험에 의존하고 거주 능력

을 상실하는 생활에 대한 성찰이 '자연 감수성' 과 '장소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감수성을 요청한다.

### 3)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문화 감수성

문화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세련된 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적·예술적 실천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이르렀다.<sup>10)</sup> 특히 문화를 창조적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로 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풍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전체의 기동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up>11)</sup>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의미부여는 문화를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요소로 보고, 주요 공공정책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최근 한국문화정책의 구호는 문화가 개인의 창의적 생활 추구에 도움 주는 정신적 가치인 동시에 다른 산업을 이끌어 경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자체도 상품이 된다는 '문화산업' 발전론이다. "문화공급의 확대→문화수요의 균점화→창의성의 재생산 투입"이라는 확대 순환을 통해서 '문화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이다.<sup>12)</sup>

문화수요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세계화 추세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즉 세계화 추세는 보편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보편문화의 팽창과 함께 고유한 정체성 욕구를 확대시킨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컴퓨터·시장경제가 보편화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차별성 추구를 통한 고유한 정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방적 고유 문화가 보다 중요해진다.<sup>13)</sup> 이제 모든 사람이 돈·기술·지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 '필요'의 충족에 따라 질적 수요가 증대하는데, 이러한 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이다. 결국 새로운 세기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가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유망한 산업으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는 '문화관광' 등에서 보듯이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가치는 상품성과는 별도로 그것이 담고 있는 진정성과 고유성으로부

터 유발되는 문화적 감수성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대량으로 생산·복사되거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상품은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재현물'이기 때문에 진정성(authenticity)이 미약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깊게 하거나 심미적 체험을 주기 어렵다. 심미적 감수성은 생명, 즉 살아있는 인간의 활동과 생생한 자연에 대한 직접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정체성의 위기와 여가의 대중화가 자연과 장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체험에 대한 심미적 문화적 욕구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지리학도 자연과 장소에 대한 대중의 문화적 욕구에 이론과 현장에서 봉사해야 한다.

## 3. 자연미와 장소성

### 1) 삶의 질의 지리학 범주로서 자연미와 장소성

자연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이 어떻게 지리학 범주와 관련되는가. 지리학적 공간 개념은 일차적으로 입지·환경·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공간적 현상과 존재는 어디에 '입지'하고, 그로 인해 외부와 '환경적 관련'을 맺으면서 존립한다. 또 그 시간적 지속은 인간 주체의 의미부여를 심화시켜 '장소'를 형성한다. 세 가지 용어들은 사회의 경제적, 자연적, 문화적 수요 영역들과 각각 상응하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측면들,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에의 접근, 환경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장소를 통한 정체성 확보와 각각 관련된다.<sup>14)</sup> 그러나 특히 이들 요소를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삶의 질' 욕구와 관련시켜 볼 때,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환경적 안전'으로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의 대상 즉 '자연미'로 인식된다. 또 장소는 문화적 감성이 부여되면서 장소감을 얻게 된다(표 1).

자연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으로서 자연미와 장소감을 고찰할 때, 자연미는 지리학 연구 전통 속에서 인간-자연의 관련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 속한다. 장소감은 지리학의 핵심 개념의 하나인 장소에 대한 문화적 의미부여를 말한다.

표 1. 지리학적 개념의 삶의 질 범주화

지리학 개념 구성 요소	입지	자연(환경)	장소
삶의 질 수요 구성 영역	기본수요 접근성	환경적 안전 자연미	문화적 정체성 (장소감)

입지·자연(환경)·장소는 상이한 공간적 실체에 대한 개념이기보다 동일한 실체에 대한 상이한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자연미와 장소감은 인간이 문화라는 정신(사회적 가치)과 자연(대지)을 미학적 감성적으로 연결하는 경관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을 이용하면서 생존을 영위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환경의 초월적 힘과 복잡한 생태학적 관계망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생리적 필요 활동에 머물지 않고, 여가를 틈타 문화적 활동을 추구한다. 자연은 일차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관념상의 상상과 이해를 축적함에 따라 심미적 대상이 된다. 곧 인간적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미가 자연에 부여되면서 자연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텍스트로서 자연미를 가진다. 장소감은 자연적 문화적 경관에 대한 미적 체험, 혹은 경관을 매개로 한 공동체 체험, 특히 친근하고 상징적인 체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정감을 말한다. 자연미와 장소감은 그 자연성과 사회성간의 비중의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는 고유성이 강하다. 그러나 양자 모두 시각과 촉각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그 심미성과 상징성이 문화적 감수성에 의하여 독해되어야 한다.

## 2) 경관 읽기

외부 공간의 일부가 인식 주체인 인간에 지각되어 경관이 된다. '지각된 공간'으로서 경관은 주체인 인간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해석되고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이 텍스트처럼 독해될 수 있다.<sup>15)</sup> 경관이 텍스트로 인식주체에 의하여 독해되어 의미를 부여받을 때, 자연미와 장소성의 대상이 된다. 경관에 대한 설명은 텍스트인 경관과 설명자의 문화적, 지적 배경 및 욕구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다. 즉 독해자는 먼저 경관을 생산하는 저자 내지 '텍스트 공동체'가

만든 텍스트 경관을 읽어야 한다.<sup>16)</sup> 텍스트 독해를 위하여 경관의 생산과 관련된 공동체의 문학작품과 그림 등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텍스트 공동체의 경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독해자는 경관생산자와는 상이한 자신의 지적 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재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저자의 의도와 독해자의 설명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관에 대한 독해는 상호 텍스트적이다. 경관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의미부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경관을 '자연미'로 문화경관을 '장소성'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 경관은 문화를 실은 텍스트로서 독해되고 재독해된다. 즉 경관은 특정한 시대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읽혀지고, 다른 시대의 다른 계급에 의해서도 다시 읽혀진다. 문화 역사적 경관 재독해는 자연미와 장소성이라는 현대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지만, 현대인의 안목과 관심에 한정되어서는 충분한 경관 감상이 불가능하다. 문학작품 등 경관을 창조한 저자와 텍스트 공동체의 기록을 통하여 자연과 장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부여를 재음미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 3) 자연미

### (1) 자연미와 심미

자연미는 모든 미의식의 원초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생물계의 일부로서 자연생태계를 스스로 구성하고 또 존립의 근거로 삼는다. 인간은 신진대사 활동으로 사는 생물체인 동시에 자연을 주체로부터 분리하여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안전한 생존을 위한 기반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 '자연미'로서 가장 보편적인 미적 체험의 대상이 되어왔다.

자연은 초기 인류에게 두려움으로 인식되었다. 아득한 낭떠러지, 크고 높은 산, 도도한 강물 등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것은 가까이 있을 때는 위험하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거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생각을 떠올리면 유쾌함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숭고미(sublimity)'이다. 자연이 두려운 대상 이면서도 미적 체험이 되는 것은 공포를 줌으로써 일차적으로 인간의 왜소함과 생명력의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형성한 물질적 토대와 문화적 교양을 통하여 안전지대에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투지를 자극하여 숭고 객체와 대결하는 실천적 투지를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으로 그 장대함을 아름다움(壯大美 혹은 陽剛美)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하려는 감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쾌함이 상승하고 생명력은 더 강력해진다. 즉 좁은 자아를 버리고 대자연과 합일하려는 감성(미적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공포를 넘어선 유쾌함과 충족감을 느끼도록 한다.<sup>17)</sup> 자연미의 원천이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관조할 때 비로소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은 미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 자는 '양대즉미(羊大則美)' 즉 양이 크면 맛있다는 데서 나왔다. 양은 사람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가축이다. 큰 양은 고기를 여유 있게 공급함으로써 생리적 욕구 충족을 넘어서 맛(味覺)을 즐길 수 있다. 양이 크면 여유를 가지고 고기 맛을 즐기며 먹을 수 있다는 미(美) 자의 기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필요보다는 만족, 특히 여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내지 쾌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자연적 생리적인 양적 수요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 감성에 사회문화 의의와 평가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미'의 의미가 풍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움의 사회적 성격에 관해서 미(美) 자의 기원이 "양인위미(羊人爲美)" 즉 '미'가 양 머리 분장을 한 추장의 가무무술(歌舞巫術)에 대한 평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집단을 학습 조직하는 상징행위의 의미를 가진 토템가무·주술의식의 부호성 문화활동을 '미'로 보는 것은 아름다움의 사회적 문화 관념적 성격을 의미한다.<sup>18)</sup> 결국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곧 심미(審美)란 첫째 이치적 사고가 아니라 감각기관에 의한 감성이며, 둘째 생리적 필요를 초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유라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심미란 자연적인 것에 연결되지만 사회문화적인 활동과 융합된 자연성의 인간화이다. 곧 심미는 자연성의 문화적

도야를 의미하고 감성과 이성·자연과 사회의 상호 융합통일을 추구하는 매우 유장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내용을 채워왔다.

## (2) 동양의 자연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특히 유교의 자연에 대한 심미는 인류 보편적인 자연미와 다르다. 서구나 인도의 외재형식의 자연에 대한 '숭고미'와 달리 유학자의 자연미는 인간의 덕성에 대한 자각과 격려를 위하여 자연을 인생과 인간관계에 대비·유추하는 문화 감성이다.<sup>19)</sup> 자연에 대한 관심의 본질이 외재 자연 자체에 있지 않고 인간의 삶과 성정(性情)의 도야에 있기 때문에 자연미까지도 객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 내재의 도덕적 이성의 감성적 생명역량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삶의 의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 생활은 참으로 분주하지만, 인생은 너무나 짧다. 잠시 여가가 있으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을 걱정한다. 생사보다 위대한 신념의 세계를 구축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신의 은총이나 영혼불멸을 믿으면 유한한 인생을 초월할 수 있을까. 그러나 유가의 선현은 생을 이해해야 비로소 죽음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sup>20)</sup>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며, 신의 은총도 빌지 않는다. 삶이 충실하다면, 개별 생명의 자연스런 종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sup>21)</sup> 다만 음미할 것은 화살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짧은 인생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란 문제에 직면하여 유학자는 자신의 삶을 전 인류·전 우주에 서로 귀속시키고 연계시키되, 그 사명감을 결코 종교적 차원으로 비약시키지 않고 담백하게 표현한다.<sup>22)</sup> 담백하게 표현된 삶의 의의와 사명감, 그리고 생사에 대한 초월이 자연미에 대한 유학자의 심미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은 유가미학의 근본적 특성으로 자연계의 변화를 내재적 인간 감성으로 용해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성찰과 초월의 방식은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심미이며, 이는 자연미에 대한 시적 상상력의 표출이다. "가는 것이

저와 같은가! 잠시도 쉬지를 않으니!(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論語], 子罕)라는 공자의 '천상탄(川上歎)'은 자연미에 대한 찬탄을 통해 유한한 인생에 대한 음미를 깊이 침전시킨 문화 감수성의 절창이다. 무한히 변화하되 쉬지 않고 지속하는 자연법칙에 대한 심미적 관찰이 유한한 인생에 대한 감성적 성찰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공자의 자연에 대한 심미는 자연미에 대한 시적 감수성을 통해 논리적 사변도 신앙도 아닌 '정감속에서의 시간의 영원함'을 생사에 대한 초월 방식으로 추구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문화적 감성이 종교를 대체하는 동아시아 문화의 찬란한 역사가 공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sup>24)</sup>

공자의 “서자여사부 불사주야(逝者如斯夫, 不舍晝夜)”와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는 수 천년 동안 동아시아 산수를 해독하는 가장 기본적 텍스트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공자의 '천상탄'은 '기수탄(沂水歎)'<sup>25)</sup>과 함께 자연미를 즐기는 현세적 인생 자각을 대표하지만, 위·진·당(魏·晉·唐)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깊은 '정(情)'에 치중하는 소요적 심미 분위기로 이끌렸다. 그러나 도학의 시대인 송대에 오면, 천지의 운행법칙에 합일하는 순일한 마음인 '성(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식적으로 해석되고, 유가들이 지향해야 할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를 교시하는 의미를 주로 한다.<sup>26)</sup>

### (3) 퇴계의 자연미

조선 중기의 세계적 유학자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위대한 시인이었다. 그의 시는 총 2,013 수나 되는데, 산수시가 압도적으로 많다.<sup>27)</sup> 유학자가 삶과 학문의 목표로 지향하는 성인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격체, 곧 자연과 일체화된 경지의 사람을 일컫는다. 유학자들에게 자연미란 그들이 함양한 내재적 도덕 이성이 자연과 만나 의기투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심미이다. 그들은 경험하는 자연에 대한 느낌을 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통하여 그들의 세계관과 자연관이 투영된 자연미를 독해할 수 있다. 자연, 곧 흐르는 물에 대한 감성을 통하여 천인합일의 삶

을 다짐하는 퇴계의 자세는 아래 시 '퇴계(退溪)'에서 뚜렷하다.

몸이 물러나니 어리석은 내 분수에 편안하나, 身退安遇分  
학문이 퇴보하니 늘그막이 걱정스럽구나. 學退憂暮境  
퇴계가에 살 자리를 정하고 나서는, 溪上始定居  
흐르는 물 바라보며 날마다 반성함이 있네. 臨流日有省

'퇴계'는 지금의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에 있는 작은 하천이다. 1546년 46세인 이황은 관직에서 은퇴를 결심하고 고향에 내려와 작은 시내 토계수 동쪽에 작은 집을 짓고, 시내의 이름을 '퇴계'로 바꾸면서 이를 자신의 호(號)로 한다. 특히 “시냇가에 살면서 스스로 반성한다(臨流自有省)”는 구절에 대하여 퇴계는 “담이 물러나 마음이 넓어지니 물처럼 아래로 나아감이 있게 되었다. 나이 들어 학문은 퇴보하지만 부지런히 힘쓰니 물같이 쉬지 않고 흐름이 있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시냇가에 거처를 정하여 계류를 보며 반성한다(身退而浩然, 有如水之就下. 學退而勉焉, 有如水之不舍也. 故定居臨省)”는 주석을 스스로 달았다.<sup>27)</sup> 공자의 '천상탄'을 상기하는 이 주석은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냇물에 대한 심미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퇴계는 삶에 대한 성찰을 자극하는 시내를 바라보는 장소에 거처를 정한 것이다.

퇴계는 좋은 임류관수처(臨流觀水處)를 찾아 여러번 거처를 옮긴 끝에 61세 되는 해에 지금의 도산서원 자리에 도산서당을 세운다. 65세에 읊은 시조 “도산십이곡”은 도산서당이 있는 일대의 자연경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노래한 것이다. 특히 제11곡은 자연에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초장의 청산이 영원히 푸르른 것은 온갖 풀과 나무들이 썩 없이 변화하면서 생겨나고(生生) 있기 때문이다. 중장의 유수가 끊어짐 없는 것(不息)은 그것이 밤낮을 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경관 독해자인 퇴계에 의해 “만고 청산”의 푸르름은 영원한 생명의 의지를, 밤낮을 그치지 않는 유수는 지속적 노력으로 임혀진다. 종장에서 우주의 영원성과 유수의 지속성이 인간의 감성에 의하여 통합되고 고양된다. 그리하여 독해자는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자연의 본성(天地之心)을 ‘우리’라는 감성 속으로 도입하여 본성으로 키워내자고 주장한다. 곧 개별 생명은 태어나고 죽지만 전체 자연생태계는 항상 생명에 넘쳐 있다. 또 시냇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생태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퇴계는 시적 감수성을 통하여 ‘생생불식’이라는 의미로 경관을 독해한 것이다. ‘생생불식’이라는 대자연의 원리는 생의(生意: 天地之心) 곧 ‘인(仁)’의 발현으로 인간의 길이 된다. 사람은 ‘천지의 마음(天地之心)’을 심미를 통하여 체득 각성하며,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 ‘천지지심’을 함께 하는 성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 사회는 천지와 같은 구조라고 본다. 천지는 밤낮으로 운행하고, 변화하며, 항상 새로워지므로, 사람도 그와 같이 항상 스스로 변화 발전하는 구조를 취해야 큰 덕(德)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장소성

##### (1) 장소감

장소는 공간의 일부가 인간(사회)에 점유되어 공유하는 경험을 시간을 두고 축적하는 과정 속에 발견되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장소는 인간(사회)과 자연의 통합이 공간적으로 실현되는 거주(dwelling)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장소를 점유하는 인간들은 그 장소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 연계를 느끼거나 의미, 정체감을 부여하는 장소감을 느낀다. 장소감을 부여받은 장소는 장소성을 가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주요 부분을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장소감은 비록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보다는 덜 구체적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들을 장소를 거점으로 연관시키고 포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정체성 요소를 결합하는 가시적인 기반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들이 상대적으로 잘 변

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지만, 장소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강한 편이다. 고향이나 고도(古都)·고적은 장소감 덕분에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오래 유지된다.

장소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나는 장소 자체의 내재적 특징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장소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첫번째 장소감은 어떤 장소가 그 자연미나 형태미, 실재이든 신화이든 의미 있는 사건 혹은 인물과 연결되어 특징적이고 기억될 만한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서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백두산과 지리산, 신라고도로써 경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장소는 자연미나 형태미 그리고 상징성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하고 독특한 장소감을 부여할 수 있다.

두번째 장소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 기억, 의도를 통하여 장소에 깊은 애착을 증진시키는 경우이다. 가장 분명한 예가 거주 공간 ‘집’이다. 집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장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안전감과 친숙감을 가진다. 애착은 장소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고, 안전감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며, 친숙감은 비록 상세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장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가족의 집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집으로서 마을, 특성 있는 역사적·문화적 장소에서 공동체적 소속감과 친밀감이 라는 집단적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 마을의 정자마당이나, 절이나 교회, 정자나 종가가 관련된 소속 구성원의 공동체적 애착을 증진시킨다. 특징적 장소에 대한 장소감과 개인의 집이나 공동체적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상이한 것이지만 상호 관련되는 ‘감정’이다. 두 가지 장소감 모두 장소의 경관적 측면이 직 간접적 장소경험이라는 주체적 측면과 융합되어 있다. 장소감을 얻는다는 것은 특정 경관이 주체의 장소경험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의미세계에 자리잡는 것이다.<sup>29)</sup>

##### (2) 장소와 퇴계의 장소감

우리는 장소를 하나의 방에서부터 대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경험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장소'라는 말에서 안전하고 친밀한 집을 연상하면서, 대조적으로 '공간'이라는 말에서는 끝없는 별관에서 느끼는 개방성과 두려움을 떠올릴 수 있다. '장소'와 '공간' 사이 스펙트럼 속에서 상이한 깊이의 장소감을 주는 다양한 수준의 장소를 구분해 낼 수 있다.<sup>30)</sup>

가장 깊은 장소감을 주는 장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형성될 수 있는 집이다. 삶의 뿌리인 집은 안전의 중심이며 양육과 관심의 장인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지향성의 출발점이다. Heidegger는 집을 이루고 사는 일을 의미하는 거주(dwelling)를 인류가 외부 자연세계와 영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힘으로 본다.<sup>31)</sup> 집에서 얻게 되는 내부적 장소감은 개인적이지만 상호 주관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다. 개인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느낌이 장소감의 본질이다. 집은 친밀한 장소이다. 우리는 주택을 집과 장소로서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깊은 인상은 바라보기만 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냄새맡을 수 있는 특정한 주택의 구성 요소와 설비 등을 통하여 환기된다. 집이 주는 보편적인 장소감은 안식처이다. 집은 보호의 영역이며 기억과 꿈의 저장고이다. Tuan은 잘 지은 건축물은 "자아(self)와 짝을 이루는 세계(world)의 닳은꼴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곧 개인적 자아에게 세계는 집이고, 집단적 자아에게는 사원, 시청 또는 시민센터와 같은 공공 환경이다.<sup>32)</sup>

"보호의 영역, 기억과 꿈의 저장고와 같은 안식처"라는 장소감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다. 그것은 외부 공간이 주는 개방성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되는 친밀과 안전의 감정으로 내부 장소이다. 여기서 외부 자연과 내부 장소는 대치하면서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은 장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외부 공간에 도전하다가 지치면 다시 장소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생명력을 충전한다. 자연(외부 공간)과 집(내부 장소)은 분리되어 있고 그 통합은 고통의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sup>33)</sup> 그러나 퇴계에 있어서 장소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거주는 외부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내부 공간으로서 경험보다는 외부 자연을 관조하고 소요하는 거점으로 의미 부여가 뚜렷하다. 퇴계는 집터를 정하는 데서부터 일상생활에까지 거주 전체

가 자연과 일체화되어서, 집이 외부 자연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식처라는 인식은 아예 없다. 오히려 집은 자연경치를 가까이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입지와 개방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계에게는 집을 나서 주위 자연을 돌아보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는 소나무(松)·대나무(竹)·매화나무(梅)·국화(菊) 그리고 연(蓮) 등 자연 경물과 절의(節義)를 나누는 계를 맺고 도산서당에 정원[節友社]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집 안팎의 모든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시를 지었다.

"처음 내가 퇴계 위에 자리잡고 시내 옆에 두어간 집을 열어 책을 간직하고 옹졸한 품성을 함양하는 장소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세 번이나 옮긴 자리는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또 퇴계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치 않기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이 산 남쪽 땅을 얻은 것이다. 여기는 자그만 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과 들이 보이고 깊숙하여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였다.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고 돌우물의 물맛이 달고도 차니, 자득하면서 살기에 적당하다…… 나는 항상 고질병에 얽매어 괴로워하여 비록 산에 거처한다해도 책 읽는데 전적으로 뜻을 둘 수 없었다. 그윽한 근심을 참고서 호흡조절을 하고 나면 이따금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며 심신이 깨끗하게 개어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 보다 感慨가 생기면, 책을 두고 지팡이를 짚은 채, 마루[巖榭軒]에 서서 연못[淨友塘]을 보기도 하고, 壇에 올라 社堂[節友社]을 찾기도 한다. (幽情門을 나서) 밭에 나가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수풀을 헤매며 꽃을 따기도 하고, 혹은 바위에 걸터앉아 샘물을 희롱하고, 囊[서당 서쪽의 天光雲影臺]에 올라 구름을 보고, 또 어떤 때에는 물가[石潭谷 濯環潭]에 서서(天淵臺) 물고기를 관상하고 배를 타고서 갈매기와 놀기도 하며, 생각이 가는 그냥 그대로 소요하고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안에 벽에는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며 마음을 다잡아 연구 사색한다. 가끔 마음이 달아 문득 깨달은 바가 있으면 기뻐서 밥을 먹는 것도 잊었다."<sup>34)</sup>

이처럼 집 안팎의 모든 작은 장소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이들 장소가 외형 형태 때

문이 아니라, 주체가 오랜 거주과정을 통하여 장소를 이용하면서 감성적으로 깊은 연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장소감을 부여받는 것임을 알려준다. 진정성 있는 장소감은 결코 물리적 형태에 의하여 유발될 수 없고, 장소를 점유하는 행위와 감성적 연계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sup>5)</sup> 임종을 앞두고 마침내 퇴계는 자연사랑의 경지가 ‘천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술회할 수 있었다.

칠십 평생을 살아온 산이지만 산사랑 더욱 지극함은  
七十居山更愛山  
하늘의 뜻과 易經의 형상 조용히 지켜볼 수 있었음이라. 天心易象靜中看  
은 시내·바람·달 모름지기 조용히 관심 들 것이요,  
一川風月須閒管  
세상만사 티끌로 변하더라도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  
萬事塵埃莫浪干

### 5) 자연미와 장소감에 대한 재독해

퇴계가 독해한 자연미와 장소는 앞에서 논의한 “숭고미로서 자연”이라는 자연미, “안식처로서 거주”라는 장소감과 다른 점이 많다. 그는 자연과 장소를 공리적 필요를 뛰어넘은 애호 차원의 아름다움과 친근감으로 내재 감성화하였다. 또 이러한 자연과 장소(거주)를 정체화함으로써 그는 삶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생명력을 충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체를 자연에 합일하는 차원으로 자연미와 장소성을 독해했다. 그에게 자연은 숭고 객체와 대결하는 실천적 투지를 불러 일으키고,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여 유쾌함을 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연은 그가 각고 노력하여 달성한 어짐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이 함축하는 천지운행의 이치를 읽어내고 마침내 일체화되는 위대한 텍스트였다. 그가 이룩한 도산서당과 여러 장소는 자연독해의 작은 텍스트로서 그는 수많은 시로서 읽어냈다.

우리는 보편적인 자연미인 숭고미, Heidegger의 거주, 그리고 Tuan의 공간과 장소의 대비 등을 참조하면서, 퇴계의 자연미와 장소를 재독해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유적지에 대하여 “숭고미로

서 자연”, “뿌리박은 거주로서 장소”라는 식의 상투적 재독해는 부적절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적절한 까닭 속에는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경관과 서원의 장소들이 1970년대의 안동댐 건설과 서원 정화사업으로 원초경관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퇴계와 서원을 출입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자연미와 장소감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퇴계로 대표되는 한국 유학의 자연미와 장소감이 보편적인 경관 독해로 예시되는 서양의 자연미·장소감과 다르기 때문이다. 도산서원 주위의 자연미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유형의 숭고미가 아니다. 퇴계가 만든 장소는 서양의 교회나 성, 그리고 전통 건축물이 상징하는 “보호된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퇴계의 자연과 장소는 자연과 인간이 합일된 일체로서 “인간의 자연화와 자연의 인간화의 통일”라는 난해한 유교적 심미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충분히 해독할 수 없는 경관이다. 퇴계가 해독한 경관을 충분히 재독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수많은 시를 참조하여 그가 자연과 장소에 부친 뜻[言志]과 감회,景物(景物)에 의탁한 감정을 텍스트 내에 포함하여야 비로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충분한 경관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 4. 요약과 함축

이 글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지리학 연구 주제를 논한 것이다. 21세기에는 시·공간 압축이 가져오는 정체성 위기가 심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의 증대가 주목된다. 많은 대중들이 여가를 틈타 즐기는 여행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가능할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의 정신적 빈곤이 진정성 없는 매개 경험에 의존하는 일상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감수성과 장소를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감수성을 요청하게 된다. 지리학에서 자연과 장소에 대한 문화감수성은 자연미와 장소감으로 파악된다. 자연미와 장소성은 문화지리학에서 경관을 텍스트로 하는 독해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충분한 경관 독해를 위해서는 경관의 생산과 관련된 저자와 공동체의 문학작품 등을 통하여 경관생산자의 이데올로기(의미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미의식의 원초형태인 자연미는 보통 '숭고미'로 인식된다. 또 심미는 여유를 전제로 가능하다. 특히 유학자에게 자연미는 인간의 덕성에 대한 자각과 격려를 위하여 자연을 인생과 인간 관계에 대비하고 유추하는 문화감성이었다. "가는 것이 저와 같은가. 잠시도 쉬지를 않나니!"라는 자연에 대한 문화감성은 공자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문화의 대도이며,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유학자의 자연심미의 예로 퇴계 이황의 자연미를 그의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퇴계는 만고상청한 산과 주야로 쉬지 않고 흐르는 계류를 관조함으로써 자연미를 "생생불식(生生不息)"으로 독해하였다.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쉬임 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뜻이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란 결국 자연에 합일하는 삶이다. 자연에 합일하려는 삶은 독특한 장소감을 형성하게 된다. 가장 보편적인 장소감 부여 대상인 집은 거칠고 위험한 외부 공간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식을 얻는 곳이다. 그러나 퇴계의 집은 자연합일을 실천하는 거점이고 그 구현체였다. 그는 집을 보호와 안식의 장소로서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보다 계류와 같은 자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개방적 구조로 만들었다.

현대인은 여가를 만들어 여행을 즐긴다. 여행에서 대자연과 장소를 방문하여 진정한 경험을 추구하고 그를 통하여 감수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감수성의 본질이 문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에서 접하는 경관을 경관 창조자가 만든 텍스트로서 읽어내야 한다. 텍스트인 경관을 제대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경관 창조자의 이데올로기 이해가 필수적이다. 유학자의 의미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유교적 경관을 보는 것은 그 소박함과 왜소함에 대한 실망만을 키울지 모른다. 유학자들이 찬탄하는 자연 경관 역시 그다지 장엄하거나 특출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서 자연은 인간본성을 읽어내는 텍스트이며, 장소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자연과 인간의 감성적 통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경관

독해는 제법 난해하지만, 경험의 진정성과 문화감수성 회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성공적인 경관 읽기를 통하여 느껴지는 유교적 자연미는 "인간성의 자연화"와 "자연성의 인간화"를 통일시켜 인간을 자연처럼 풍요롭게 하고 단절되어 가는 인간-자연환경의 진정한 감정적 관련성을 확인시켜 준다.

## 註

- 1) 성찰이란 주체가 자신이 속한 사회체제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조금 떨어져 그 내부와 외부를 선회하면서 사회에 대한 지식 자체와 그 세계를 자유롭게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며 통합하는 창조적인 사고이며 행위이다. - 이윤희 이현희 옮김, 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30-31.(Giddens, A., 198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2) Harvey, D., 구동희·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서울, 346-373(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an I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Oxford).
- 3)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Cambridge MA & Oxford UK, 401-406.
- 4) Relph, E. C.,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5) 사회학자 Bell은 Riesman이 만든 '후기산업사회'라는 용어가 이른바 '여가 사회'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이 이룩한 물질적 번영에 대한 인상을 정리하면서, Riesman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의 압제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후기산업사회 상황을 맞았다고 감격하였다(김종일, 1995, "여가와 사회복지: 통합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사회과학, 34(2), 별책특집 삶의 질 향상과 여가(I), 140.
- 6) "결국 노년의 삶은 여가 그 자체이다. 그러나

- 여가는 더이상 노동과의 대립점에 서있는 개념이 아니다. 노동 그 자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산업사회에서 여가는 여가를 시간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었으나 동시에 그 물질 토대가 되어 주었다. 이 모순적 관계가 노년의 삶에서는 해소된다. 하지만 그 해소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여가의 시간적 제약 요소이던 노동이 사라지면 역설적으로 여가의 물질적 토대도 붕괴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개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년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 여가에 관한 국가 복지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 앞의 논문, 136-137.
-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왔던 복지와 여가의 요람으로서 기능을 예전처럼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 다른 영역, 특히 상업화된 영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여가에 대한 욕구를 상업적 영역에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앞의 논문, 138-139.
- 7) 母乳養育은 필요와 만족을 구분하고 만족이 필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킨다는 시너지 효과(아이의 생존과 부모의 보호, 보살핌, 정체성)를 이 해시키는 좋은 예이다(Jackson, T., 1966, *Material Concerns -Pollution, Profit and Quality of Life*, Routledge, 183-189).
  - 8) 박이문,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82-85.
  - 9)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Bird, J.,(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11.
  - 10) Johnston, R. J., Gregory, D. and D. M. Smith(eds.), 1994, “Culture,”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3rd ed, Blackwell, 116.
  - 11) 馬場憲一, 1998, 地域文化政策の新觀點, 資料編, 文化振興 마스터플랜, 日本 文化廳, 1998,3,31, ‘지금 왜 文化立國인가’.
  - 12) ‘문화산업의 시대’라는 주장은 앞으로 경제성

- 장을 소프트 산업 즉 정보 통신 영상 산업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비물질적 부분이 상품화 되고, 일반 산업에서도 문화적 내용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menu05.html>) 참조.
- 13) “세계에서 로컬한 문화는 글로벌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시 구성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문화부흥이나 문화적 자치에 대한 움직임이 세계의 곳곳에서 성행하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역설 가운데 하나이다. 외면적인 균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문화적 정체성의 잠재적 탐구와 주장은 강화된다. 지구 규모에서 균일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우리는 과거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호하려 하고, 나아가 종교, 문화 언어 혹은 민족을 수호하고자 한다. -존 나이스비트 지음, 박동진 옮김, 1999, 메가첼린지,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14.
  - 14) 김덕현, 1996, “삶의 질의 대두와 공간환경”, 사회과학연구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4(1), 21.
  - 15) Duncan, J., 199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16) ‘텍스트 공동체’는 “한 텍스트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읽으며, 그리고 하나의 대본에서 나온 연극으로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 Duncan, J, 1998, 앞의 논문, 120.
  - 17) 장과 지음, 유중하 외 옮김,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 숲, 201-244.
  - 18) 李澤厚 著, 權瑚 譯, 1990, 華夏美學, 東文選, 8-19.
  - 19) 李澤厚 著, 權瑚 譯, 1990, 앞의 책, 83-93.
  - 20) “아직 生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死를 알겠느냐 (知未生, 焉知死)” -論語, 先進篇.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 -論語, 里仁篇.
  - 21)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뜻에 순종하니, 삶을 마칠 때는 편안할 것이다 (存吾順事, 殁吾寧也)”, 張載, [西銘]

- 22) “爲天地立心, 爲民生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歲開太平”, -張載, [近思錄] ‘爲學篇’
- 23) 李澤厚 著, 權瑚 譯, 1990, 앞의 책, 83.
- 24) “子曰, 以吾一日長乎爾나, 毋吾以也하라. 居則曰不吾之也라! 如或知爾면, 則何以哉오? .....點아, 爾何如오? 鼓琴希러니, 爾 하고, 舍琴而作하야. 對曰, 異乎三子之撰입니다. 何傷乎리요, 亦各言其志也니라. 暮春者에, 春服既成이거던, 冠者五六人과 童子六七人으로, 浴乎沂하고, 風乎舞雩하고, 詠而歸하겠습나다. 夫子 然歎曰, 吾與點也하노라.” -論語, 先進篇.
- 25) “逝者如斯夫 晝夜不息”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程顥는 “성인의 마음이 순일하고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일하고 그치지 않음은 하늘의 ‘덕’ 이니 하늘의 덕이 있어야 왕도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요점은 다만 자기 스스로를 삼가는데 있다(此見 聖人之心, 純亦不已也. 純亦不已 天德也. 有天德便可語王道. 其要只在慎獨)” -近思錄, 存養篇.
- 26) 王甦 著 李章佑 譯, 1997, 退溪詩學(改譯版). 중문.
- 27) 이장우, 장세후 역, 1996, 퇴계시 풀이, 중문, 471.
- 28) Crang, M., 1998,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102-104.
- 29) 김덕현, 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1-83.
- 30) Relph, E. C.,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142.
- 31) Heidegger, 1954, “Bauen wohnen decken,” *Vortraege und Aufsaezte*, Guenther Neske Pfullingen, 161; 김우창, 1997, “문학의 옹호,” 녹색평론, 27, 33-34에서 재인용.
- 32) 이-푸 투안 지음, 구동회 · 심승희 옮김, 1996, 공간과 장소, 대운, 267.
- 33) 장파 지음, 유중하 외 옮김,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 숲, 235-236.
- 34) 退溪全書 卷3, “陶山雜詠并記”: 본문의 ( ) 안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 35) Kimberly, D., 1985, “The quest for authenticity and the replication of environmental meaning,” in David S. and Robert M.(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33-34.

## 文 獻

- 구동회 · 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서울(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an I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Oxford).
- 김덕현, 1996, “삶의 질의 대두와 공간환경,” 사회과학연구, 14(1),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5-22.
- , 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1-83.
- , 1997, “장소감의 유형과 장소 재현,” 사회과학연구, 15(2),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07-131.
- , 1998, “한국인의 공간 환경적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16(3),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7-26.
- · 장봉규, 1998, “남해 주민의 삶의 질-공간 · 환경 현황과 정책 방향-,” 사회과학연구, 16(3),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7-233.
- · 최병두 · 손일, 1997, “삶의 질 -공간환경의 특성과 그 추구방안,” 사회과학연구, 15(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36.
- 김우창, 1997, “문학의 옹호”, 녹색평론, 27.
- 김종철, 1999, “시적 인간과 생명의 논리,”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 大東文化研究院, 1965, 經書.
- 大東文化研究院, 1978, 增補退溪全書.
- 大濱皓(오하마 아키라), 1983, 朱子の哲學, 이형설 옮김, 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 데이비드 페퍼 지음, 이명우 외 옮김, 1989, 현대환경론, 한길사
- 박이문, 1997, “생태학적 합리성과 아시아 철학,” 녹색평론, 36, 2-26.

- 박이문,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 박혜숙, 1998,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42.
- 사라 알란 지음·오만종 옮김, 1999,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사회과학, 34(2) 별책특집 삶의 질 향상과 여가(I).
- 손오규, 1999, "산수문학에서의 산수와 산수미,"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상상력의 자리찾기, 백의.
- 王甦 著, 李章佑 譯, 1997, 退溪詩學(改譯版). 중문.
- 이-푸 투안지음, 구동희 심승희 옮김,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 이윤희·이현희 옮김, 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30-31(Giddens, A., 198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이장우·장세후 역, 1996, 퇴계시 풀이, 중문. 李澤厚 著·權瑠 譯, 1990, 華夏美學, 東文選.
- 장봉규·김덕현, 1998, "진주 시민의 삶의 질-장소성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3-196.
- 장파 지음·유중하 외 옮김,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 숲.
- 鄭東和, 1997, "退溪 山水詩의 形象化에 대하여," 退溪學研究, 11,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89-124.
- 존 나이스비트 지음·박동진 옮김, 1999, 메가첼린지, 국립증권경제연구소.
- 崔大林, 1995, 近思錄, 흥신문화사.
- 폴 에킨스, 1996, "욕구의 문제," 녹색평론, 28.
- 馬場憲一, 1998, 地域文化政策의 新觀點-文化遺産保護에서 傳統文化繼承으로-, 日本 雄山閣. <http://www.mct.go.kr/menu05.html>
- Crang, M., 1998,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Bird, J.,(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 Duncan, J., 199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Cambridge MA & Oxford UK.
- Jackson, T., 1966, *Material Concerns -Pollution, Profit and Quality of Life*, Routledge.
- Dovey, K., 1985, The quest for authenticity and the replication of environmental meaning, in David S. and Robert M.(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33-49.
- Johnston, R. J., Gregory, D. and Smith, D. M.(eds.), 1994,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3rd ed., Blackwell
- Relph, E. C.,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Tuan, Yi-Fu, 1974, Space and Place: Humanistic Perspective, *Progress in Geography*, 6, 223-246.